



Received: 2026/01/26  
Revised: 2026/02/06  
Accepted: 2026/03/03  
Published: 2026/03/31

**\*Corresponding Author:**

Seong-Yong Kim  
ROK Naval War College 271, Jaun-ro, Yuseong-gu,  
Daejeon, 34059, Republic of Korea  
Tel: +82-42-975-2447  
E-mail: syk1034@naver.com

# 텍스트 마이닝 기반 감성분석을 활용한 해군·해병대 모병 정책 반응 분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기반 감성분석을 활용하여 해군과 해병대의 모병 정책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분석하였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뉴스를 정책 영역별로 분류한 후 연도별 감성 분포를 분석한 결과, '보상·수당' 영역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난 반면, '인력·모병' 영역에서는 부정적 반응이 지속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모병 정책에 대한 체감 반응을 통해 정책을 평가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다.

This study analyzed social responses to recruitment policies of the Republic of Korea Navy and Marine Corps using text-mining-based sentiment analysis. News articles published between 2021 to 2025 were classified into policy domains and analyzed by year, revealing relatively positive responses in 'compensation and allowance' policies and persistently negative responses in 'manpower and recruitment' policies. This study proposes a novel approach to evaluating recruitment policies by incorporating perceptual responses.

**Keywords**

모병 정책(Recruitment Policy),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감성분석(Sentiment Analysis), 해군(Navy),  
해병대(Marine Corps), 정책 반응(Policy Response)

## Analyzing Responses to Navy and Marine Corps Recruitment Policies Using Text-Mining-Based Sentiment Analysis

김성용\*

해병대 소령/해군대학 지휘참모과정 학생장교

Seong-Yong Kim\*

LCDR, ROK Marine Corps/Student officer of Naval Commander & Step Course,  
ROK Naval War Colleges

### 1. 서론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와 청년 세대의 가치관 변화는 군 인력획득 체계 전반에 큰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원에 기반한 모병 제도를 운용하는 해군과 해병대는 정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과 조직 이미지에 따라 모집 성과가 영향을 받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모집 실적 중심의 수치적인 정책 평가를 넘어, 정책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동안 해군과 해병대의 모병 정책에 대한 평가는 주로 지원율, 충원율 및 설문조사 등 제한적인 정량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언론 보도나 온라인 담론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인식과 감성적 반응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해군과 해병대의 모병 정책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분석하여, 정책 영역별 사회적 반응과 감성 인식의 특성을 비교 및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모집 정책에 대한 체감 반응을 정책 평가에 보조적으로 활용 가능한 실증적 근거로 제시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및 문헌 연구

### 2.1 모병 정책의 제도적 기준과 텍스트 마이닝

해군과 해병대의 모병 정책은 단순한 인력 충원 수단을 넘어 인력 운용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병 복무 여건 및 인력획득 관련 국방부 지침」 등에서 지원 기반 모병 제도의 운용 방향으로 안정적 병력 확보와 함께 우수 인력 유도, 조직 신뢰도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1,2]. 이는 모병 정책의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 제도적 기준과 더불어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시사한다.

텍스트 마이닝은 대규모 비정형 텍스트 자료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와 패턴을 추출하는 분석 기법으로, 최근 정책 분석과 사회 인식 연구 분야에서 활용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뉴스 기사, 온라인 게시글, 댓글과 같은 텍스트 자료는 정책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반응이 비교적 직접적으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분석대상이 된다.

감성분석은 텍스트 마이닝의 하위 기법으로, 텍스트에 내재된 긍정·부정 정서를 분류하거나 그 강도를 측정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정책에 감성분석을 적용할 경우, 정책 메시지가 긍정적으로 수용되는지, 혹은 부정적 인식이 축적되고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비교 및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기법을 해군과 해병대의 모병 정책에 적용하고자 한다.

### 2.2 국내 및 해외 연구

국내에서 모병 및 병역 제도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인구 구조 변화와 병역자원 감소라는 구조적 환경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를 사회적 인식 차원에서 분석하려는 시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김동훈(2024)은 병역 제도와 모병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뉴스 기사와 온라인 텍스트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는 인구 감소 담론과 병역·모병 관련 키워드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시기별 담론 변화 양상을 제시함으로써 병역 제도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인식 변화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고 분석하였다. 다만 각 군 간의 모병 정책의 차이나 개별적인

특성을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은 한계를 지닌다[3].

박종탁(2021)은 인구 구조 변화, 안보 환경, 병역자원 관리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한국 병역 제도의 제도적 전환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병역 제도 변화의 구조적 배경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으나, 사회적 인식이나 정책 담론을 정성적 방법으로 한정하여 분석했다[4].

이처럼 국내 연구는 병역 제도나 모병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논의가 주로 수행되었으나, 각 군의 모병 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분석한 연구와 이를 비정형 텍스트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한 실증 연구는 희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외에서는 모병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모병 정책의 효과성과 지원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SNS나 온라인상에서의 담론이 군의 모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Aryanto & Claudia(2025)는 인도네시아를 사례로 SNS 활용이 군 모집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는 디지털 콘텐츠 노출과 군 조직에 대한 인식 변화가 지원 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온라인에서의 담론 분석이 모병 정책 평가에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줬지만, 정책 내용별 반응이나 연도별 감성 변화 양상을 분석하지 않은 한계를 지닌다[5].

Peralta & Caporusso(2020)는 군 조직의 SNS 활용이 지원자들의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모병 성과와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6]. 또한 Yeung & Gifford(2010)는 예비 지원자들이 입대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식 홈페이지,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정보를 탐색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7]. 이들의 연구는 군 모병 과정에서 정책이 온라인 환경에서 어떻게 전달되고 담론이 형성되는지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두 연구는 특정 시점의 설문조사나 사례 분석에 기반하고 있어, 일정 기간 온라인 담론의 변화나 정책 발표 이후의 사회적 반응의 변동 양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종합하면 해외 연구는 모병 정책과 사회적 인식 간의 관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텍스트 마이닝과 감성분석을 적용하여 군의 모병 정책 담론과 사회적 인식을 비교·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희

소했다.

### 3.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 3.1 분석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해군과 해병대의 모병 정책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분석하기 위해 언론 보도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대상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이는 최근 병역자원 감소 및 모병 환경 변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시기를 반영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국내 주요 포털을 통해 제공되는 뉴스 기사를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검색어는 ‘해군 모병’, ‘해군 모집’, 또는 ‘해병대 모병’과 같이 모병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키워드를 기준으로 설정했으며, 수집된 기사 중 단순 사건·사고 보도나 정책과의 관련성이 낮은 기사들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를 통해 해군과 해병대의 모병 정책 및 관련 제도, 복무여건, 인력 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사만을 최종 분석 자료로 재구성하였다.

이후 수집된 뉴스 기사를 해군·해병대별로 구분한 후, 다시 연도별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각 군의 정책 반응에 대한 차이를 비교하는 동시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양상까지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수집된 해군 관련 뉴스 기사 6,068건과 해병대 관련 기사 5,798건, 총 11,866건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그 현황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News articles related to recruitment policies about Navy and Marine Corps (2021 ~ 2025)

Military	2021	2022	2023	2024	2025	Total
Navy	1,094	835	1,112	1,370	1,657	6,068
Marine Corps	565	492	1,142	1,800	1,799	5,798

#### 3.2 텍스트 전처리 및 정책 영역 분류

수집된 뉴스 기사 텍스트는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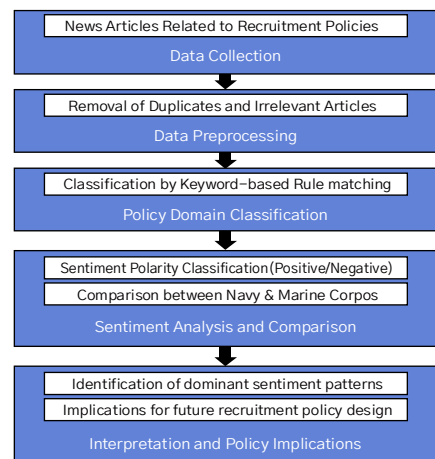
위해 전처리 과정을 거쳤다. 전처리 과정에서는 불필요한 특수문자, 숫자, 조사 및 불용어(stop words)를 제거했으며, 동일 의미를 지니는 단어의 표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형태소 단위로 정규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전처리 과정을 통해 텍스트 데이터의 노이즈를 줄이고 감성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전처리된 텍스트는 모병 정책의 성격에 따라 정책 영역별로 분류하였다. 분류 기준은 선행연구 및 국방 관련 공식 문서에서 제시된 모병 정책의 구성요소를 참고하여 설정했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 ① 보상·수당, ② 복무 여건, ③ 인력·모병, ④ 제도·정책 환경으로 구분했으며, 각 영역에 해당하는 핵심 키워드는 Table 2와 같이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5단계에 걸쳐 진행되도록 설계했으며, 이를 도식화하면 Fig. 1과 같다.

**Table 2.** Policy domains and representative keywords applied in this study

Policy Domain	Representative Keywords
Manpower and Recruitment	recruitment, enlistment, application rate, force strength, manpower shortage, personnel shortage, officer recruitment, applicants
Compensation and Allowances	pay, salary, allowance, soldier pay, compensation, pay raise, welfare benefits, remuneration
Service Conditions	service conditions, working conditions, living quarters, working environment, rest, workload, treatment, welfare, job satisfaction
Institutional and Policy Environment	conscription system, recruitment system, defense policy, military manpower resources, institutional reform, low birth rate, population decline



**Fig. 1.** Research framework and analysis procedure

### 3.3 감성분석 방법 및 분석 절차

본 연구는 해군과 해병대의 모병 정책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분석하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 기반 감성분석을 적용하였다. 감성분석은 정책 관련 텍스트에 내재된 정서적 반응을 정량적으로 분류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방향성과 분포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둔다.

감성분석은 긍정(positive), 중립(neutral), 부정(negative)의 3 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수행하였다. 이는 뉴스 기사 텍스트의 특성상 사실 전달 위주의 중립적 서술이 다수 포함되므로, 감성을 긍정 또는 부정으로만 구분할 경우 과도한 분류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립 감성은 정책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사회적 반응의 잠재적 변화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감성분석은 KNU 한국어 감성 사전을 기반으로 수행하였다[8]. 해당 감성 사전은 한국어 단어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의 감성을 사전에 정의한 자료로, 뉴스 기사와 같은 비정형 텍스트 분석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전처리된 뉴스 기사 텍스트에서 감성 사전에 포함된 어휘의 출현 여부와 빈도를 기준으로 감성 전수를 산출하였다. 감성 사전에 포함된 긍정 또는 부정 어휘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사는 ‘중립’으로 분류하여 왜곡을 방지했다.

감성분석 결과는 전처리 및 정책 영역 분류가 완료

된 텍스트를 대상으로 산출했으며, 각 뉴스 기사는 문장 단위로 감성 판단을 종합한 후 기사 단위로 분류하였다. 감성 분류 과정에서는 특정 감성 단어의 단순 출현 여부가 아닌 해당 단어가 사용된 의미와 문맥을 함께 고려하였다.

이 절차를 통해 산출된 감성 분류 결과는 해군과 해병대, 정책 영역, 연도 단위로 정리하여 이후 분석에 활용하였다.

### 3.4 해군·해병대 분석 및 비교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해군과 해병대라는 두 군을 비교하는 관점에서 해석한다. 개별 기사나 여론의 단기적 반응이 아닌, 정책 영역별 감성 분포의 구조적 차이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양상에 분석의 초점을 둔다.

이를 통해 동일한 모병 정책이라 하더라도 각 군의 조직 특성과 정책 수용 환경에 따라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검토하고, 이러한 차이가 지속적인 양상인지 혹은 특정 시기에 한정된 현상인지를 해석한다.

## 4. 분석 결과

### 4.1 정책 영역별 감성 분포 분석

정책 영역별 감성 분포 결과는 Fig.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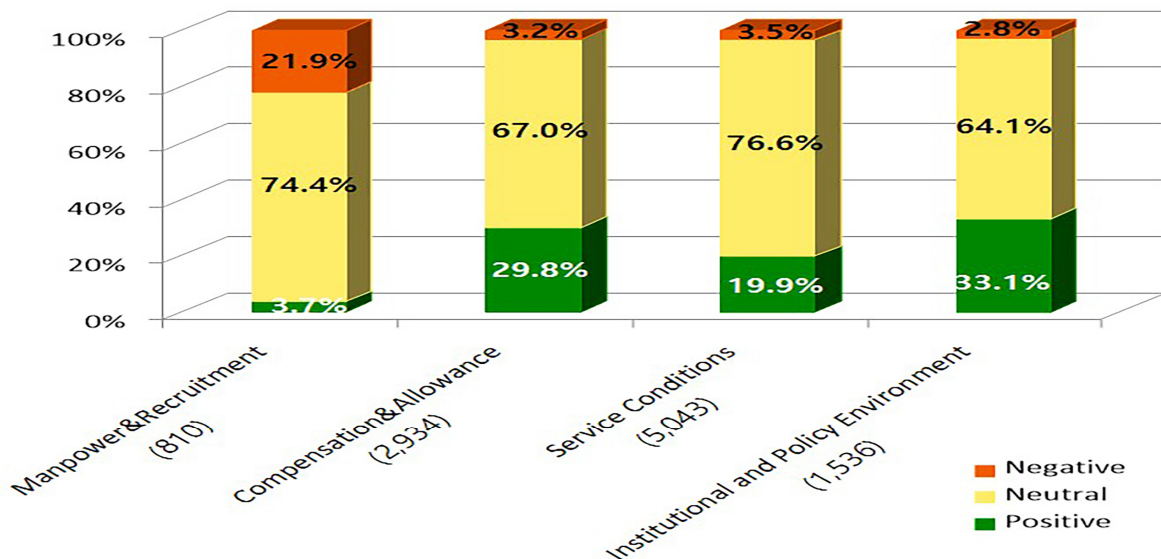


Fig. 2. Distribution of sentiment share across the recruitment policy domains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 언론 보도의 특성상 중립적 표현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긍정과 부정 감성의 분포를 중심으로 감성 구조를 해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 영역에 따라 감성 분포에는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인력·모병 영역에서는 부정 감성의 비중이 약 20% 이상으로 다른 정책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해당 영역은 병력 부족, 지원을 감소, 간부 확보 문제 등 구조적 어려움을 다루는 기사가 많았으며, 이러한 이슈들이 반복적으로 부각되면서 부정적 감성이 누적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인력 확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누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보상·수당 영역에서는 긍정 감성의 비중이 약 3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병사 급여 인상, 수당 확대와 같은 정책 이슈가 긍정적으로 보도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정책 발표 이후 재정 부담과 같은 보도가 함께 나타나며 일정 수준의 부정 감성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복무 여건 영역에서는 중립 및 부정 감성의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해당 영역의 기사들은 근무 환경, 생활관 개선, 근무 강도와 같은 사안들을 사실 전달 중심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았으며, 동시에 근무 여건에 대한 문제 제기 후 개선 요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복무 여건과 관련된 담론이 문제 인식과 정보 전달이 혼재된 형태로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제도·정책 환경 영역에서는 긍정 감성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병역 제도 개편, 인구 구조 변화 대응과 같은 거시적 이슈들이 문맥상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기사가 많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시에 해당 영역에서는 중립 감성의 비중 역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정책 방향과 배경을 설명하는 정보 제공 중심의 보도가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정책 환경 영역이 정책 논의의 배경이 되는 동시에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가 함께 반영되는 영역임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모병 정책과 관련된 사회적 반응은 정책 영역에 따라 상이한 감성 구조를 보이며, 특히 인력·모병과 같은 핵심 영역에서는 부정 감성이 상대적으로 축적되는 반면, 제도·정책 환경과 보상·수당 영역에서는 긍정적 반응이 비교적 두드러지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이후 해군·해병대의 비교 분석에서 정책 수용의 차이를 해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4.2 해군·해병대 감성분석 분포 비교

동일한 정책 영역에 대한 해군·해병대의 감성분석 결과를 비교한 내용은 Fig. 3와 같다.

동일한 정책 영역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해군과 해병대는 모병 정책에 대한 사회적 담론의 감성 구조가

	Manpower and Recruitment		Compensation and Allowance		Service Conditions		Institutional and Policy Environment	
	Navy	Marine	Navy	Marine	Navy	Marine	Navy	Marine
2021	-0.051	-0.109	0.258	0.457	0.063	0.117	0.243	0.557
2022	-0.099	-0.172	0.312	0.436	0.111	0.125	0.209	0.286
2023	-0.169	-0.291	0.521	0.615	0.121	0.227	0.364	0.404
2024	-0.188	-0.226	0.281	0.335	0.177	0.201	0.446	0.670
2025	-0.328	-0.103	0.224	0.357	0.179	0.353	0.444	0.555

Fig. 3. Average sentiment scores across the recruitment policy domains for the Navy and the Marine Corps



부정 감성이 대체로 지속된 반면, 다른 정책 영역에서는 긍정 감성이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하면, Fig. 3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해군과 해병대의 모병 정책 관련 사회적 담론은 정책 영역별로 상이한 감성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연도별로 강조되는 이슈와 담론의 초점이 변화하는 과정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해군의 경우 연도별로 주요 정책 이슈와 키워드는 변화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제도·정책·행정 중심의 담론이 유지되면서 감성 분포의 안정성이 두드러졌다. 반면 해병대는 시기별 주요 이슈와 보다 직접적으로 결합된 담론이 형성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인력·모병 영역에서는 부정 감성, 보상·수당 및 제도·정책 환경 영역에서는 긍정 감성이 대체로 지속되며 감성의 방향성은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Fig. 4에서 제시된 연도별 워드클라우드를 이러한 각 군의 담론 형성과 감성 구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형성되고 결합하였는지 참고할 수 있게 한다.

#### 4.4 시사점 및 모병 정책 적용방안

앞선 분석을 통해 해군·해병대의 모병 정책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정책 영역과 군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감성 구조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모병 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정책 영역별·군별로 상이하게 수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므로, 감성분석 결과를 모병 정책의 적용방안에 논의한다.

##### 4.4.1 정책 영역별 감성 구조에 따른 시사점

인력·모병 영역은 두 군 모두에서 부정적 감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이는 해당 영역이 모병 정책 전반에서 가장 민감하게 인식되는 영역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감성 구조는 인력 확보와 관련된 정책이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정책 설명 과정에서 해당 영역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상·수당 영역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 감성이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해당 정책 영역이 비교적 명확하게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하고, 보상 체계와 관련된 영역이 안정적인 수용 기반을 형성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복무 여건 영역에서는 중립 및 긍정 감성이 혼재된 구조가 나타났으며, 이는 근무 환경과 관련된 정책이 평가보다는 정보 전달과 문제 인식의 대상이 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제도·정책 환경 영역에서는 긍정 감성과 중립 감성이 함께 나타나, 거시적인 정책 변화와 제도 개편이 설명과 정보 전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4.4.2 군종별 감성 특성에 따른 모병 정책 적용방안

해군의 경우, 감성분석을 통해 확인한 안정적인 감성 구조를 정책 설명과 전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집 제도, 복무 경로, 경력 관리 체계와 관련된 정책이 제시될 경우, 정책 발표 시점에서 해당 제도의 구조와 운영 원리를 중심으로 정보를 구성하고, 이후 일정 기간 감성 분포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정책 인식의 변동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은 정책 이슈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감성 구조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해군의 특성을 반영한 적용한 것이다.

해병대의 경우 감성 변화의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고려한 적용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인력·모병 영역과 관련된 정책이 추진될 때 정책 시행 전·후의 감성 분포를 비교하거나, 특정 이슈가 부각되는 시점에서 감성 변화의 방향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정책 인식의 변화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최근 인력·모병 영역에서 나타난 감성 완화 양상을 식별한 것과 같이 정책 변화가 사회적 반응에 반영되는 과정을 더욱 빠르고 세밀하게 파악이 가능하게끔 한다.

이처럼 각 군의 감성 특성은 정책을 설명하고 전달하는 과정, 그리고 정책 시행 이후 사회적 반응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군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커뮤니케이션 설계와 정책 효과 점검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5. 결론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과 감성분석을 활용하여 해군과 해병대의 모병 정책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정

책 영역과 각 군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모병 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단일한 여론이나 일시적 평가가 아니라, 정책 영역과 군종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감성 구조로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본 연구는 모병 정책과 관련된 비정형 텍스트 자료를 활용하여 정책 영역별로 군의 감성 분포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연도별 분석을 통해 정책 담론의 주제와 키워드는 변화하더라도 감성 구조는 일정한 방향성을 유지될 수 있으며, 모병 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단기적 이슈보다는 정책 영역별 특성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동일한 모병 정책이라 하더라도 군의 특성에 따라 사회적 반응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모병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거나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검토할 때, 해당 군의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모병 정책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비교·해석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분석 자료를 뉴스 기사로 한정함에 따라 개인의 직접적인 인식이나 반응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SNS, 온라인 커뮤니티, 설문조사 자료 등 출처를 다양화한다면 모병 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감성 사전에 기반한 분석 방법의 특성상 문맥에 따른 의미 차이나 복합적인 정서를 완전히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딥러닝 기반 감성 분석이나 혼합 분석 방법 등의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정책 영역을 사전에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정책 영역 간 상호작용이나 복합적인 담론 구조까지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정책 영역을 더욱 세분화하거나 동적 변화 분석 기법 등을 적용한다면 더욱 정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1] 국방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2023~2040), 2023.
- [2] 국방부, 군 인사법 시행규칙[국방부령 제1140호] (2024. 6. 1. 시행), 2024.
- [3] 김동훈, '인구감소가 병역제도에 미치는 사회적 인식 연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텍스트마이닝과 사회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2024.
- [4] 박종탁,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의 병역 제도 전환에 관한 연구: 제도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2021.
- [5] Ari Aryanto & Meiske Claudia, 'Finding the Best Candidates: Innovation in Recruitment and Selection of Indonesian Army Soldiers,' *Jurnal Ilmiah Wahana Pendidikan*, VOL. 10, NO. 23, 2024, pp. 1341-1342.
- [6] A. Peralta & N. Caporusso, 'The Impact of Social Media in Military Recruiting,' *Advances in Intelligent Systems and Computing*, VOL. 970, 2020, pp. 123-131.
- [7] D. Yeung & B. Gifford, 'Potential Recruits Seek Information Online for Military Enlistment Decision Making,' *Armed Forces & Society*, VOL. 37, NO. 3, 2010.
- [8] KNU, KNU 한국어 감성 사전, 2020.  
[http://semantic.korea.ac.kr/resource/download/sa\\_2.zip](http://semantic.korea.ac.kr/resource/download/sa_2.zip)  
(accessed 2026.01.10.)